



물을 아끼고 깨끗이 써야한다

白 永 勳

우리는 흔히 우리 國土 資源의 貧困性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할 때가 많다. 人口 4千萬이 經濟的 自主 基盤을 다져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天賦的 資源이 없기 때문이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貧弱한 國土와 岩壁으로 둘러싸인 山岳은 별다른 價値를 發見할 수 없는 것이 恨스러울 때가 많다. 이런 점에서 美國, 캐나다, 中東 등 工業資源이 豊富한 다른 나라의 天賦的 條件을 부러워할 때가 많으며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資源을 우리 國土안에 保有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自主 經濟 基盤은 훨씬 더 다져졌을 것이다.

그러나 中東의 產油國을 보고 돌아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國土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름』과 『물』이 두가지 資源중에서 어느 것이 더욱 所重한 資源인가를 깨닫게 된다. 中東 產油國들은 비록 엄청난 埋藏量의 기름을 保有하고 있지만 그대신 水資源이 없어 食水마저 外國에서 輸入하는 처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水資源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토록 水資源은 國土가 지닌 唯一한 經濟 資源임에도 不拘하고 우리들은 마치 『물』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기에 無限的 資源으로 믿고 있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資源이라는 價値意識마저 缺如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用水의 急激한 需要 增大는 우리로 하여금 水資源의 限界性을 머지않아 맞게 될 심각한 用水不足을 展望하게 하고 있다. 資源은 당연히 有限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浪費的이고 헤프게 쓰는 것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意識이요, 觀念이지만 中東이나 沙漠의 나라에서는 아끼고 안쓰는 것을 『물같이 쓴다』고 表現한다. 이제 우리도 『물아끼듯 한다』는 말이 節約의 비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意識과 觀念의 새로운 定立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물은 공짜”라고 하는 基本觀念을 버려야 이와같은 새로운 意識構造 위에서 우리는 水資源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觀念을 지녀야 한다.

첫째로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觀念을 달리해야 한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올릴 수도 있고, 逆流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지 않고는 水資源을 우리의 生活, 國家 發展에 알맞게 生活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洛東江의 물을 퍼 올리고 산을 넘어 蔚山으로 供給하고 있으며 北漢江의 물을 東海岸의 北坪까지 퍼 넘기고 있고 揚水式 用水 供給을 위하여 많은 揚水機가

물길을 되돌리고 있다. 따라서 水資源의 人爲的 管理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可能하고 또 그렇게 쓰는 것으로 우리의 觀念이 一般化되어야 한다. 소련의 『시베리아』開發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河川의 逆流는 用水 供給을 위한 수단으로서 普遍化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水資源의 利用은 흐르는 물만이 아니고 담겨 있는 물, 폼어올린 물을 利用하는 것으로 觀念이 바뀌어야 한다. 河川에 물이 있어야만 水資源이 豊富한 것으로 알고 河川 流出水를 水利用의 主役으로 삼아야 하는 自然的 制約은 쉽사리 解消되기 어렵다. 그러나 地下水를 퍼올리고 똑이나 『댐』에 담아둔 물을 使用하는 比率이 훨씬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세째로 모든 需給計劃에서 그렇듯이 用水需給 計劃에서도 供給을 增大하고 多樣化하는 것과 함께 需要를 合理化하여야 한다. 특히 水資源이란 產油國과 같이 急增하는 國富로서도 輸入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需要를 調整하여야 한다. 水洗式便器와 浴室달린 住宅이 普遍化되고 집집마다 몇개씩의 水道꼭지가 달려있고 工場과 業務用 건물에 用水栓이 많아지는 現實속에서 이들 末端需要에 대한 節水를 위해 技術開發이 促進되고 철저한 節水가 生活化되어야 한다. 水資源이 세계에서 가장 豊富한 『스위스』에서도 他國 領土에서 流出되는 水量을 確保하기 위하여 山岳地帶에 巨大한 人造湖를 만들고 家庭마다 標準用水量을 生活化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敎訓이 아닐 수 없다.

네째로 水資源은 우리에게 空氣 다음으로 不可缺의 生存要素이며 地球를 싸고 하나가 되어있는 空氣에 비하여 輸入도 되지 않고 國土에 限定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뜰히 管理되어야 한다는 觀念이 必要하다.

다섯째로 水資源은 量의 면에서만 아니라 質의 면에서도 保障되어야 한다. 人口增大, 生産增大, 生活領域의 廣域化 등으로 用水의 需要가 多樣化되고 大規模化 되는데에 따라서 水資源이 汚染될 外部的 要因은 急增하고 있는 反面, 各種 生活用具와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서 보다 깨끗한 물, 淸淨水資源에 대한 需要가 커지고 水資源의 淸淨要求도 높아질 것은 當然하다. 한번 쓰고난 用水는 地下에 스며들어 地下水로 다시 使用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上流에서 一次 利用한 水가 下流에서 다른 用度로 再使用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물을 깨끗하게 써야 하고 汚染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意識이 자리잡혀야 한다.

[筆者：本會理事·經博·韓國產業開發研究院長]